



# 한국 근로자의 건강불평등

최은숙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Health Inequalities Among Korean Employees

### 1. 연구배경

사회적 지위는 직업건강 불평등의 결정요인일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로환경과 건강결과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2.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2011년 근로환경조사에 참여한 15세 이상 취업자 중 27,598명의 임금근로자이다. 사회적 지위는 고용상태, 직업계층, 회사규모로 파악하였다. 근로환경은 비정형 근로, 물리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업무요구, 업무자율성, 사회적 지지와 업무보상을 의미한다. 건강결과는 주관적 건강, 일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의 위험, 우울증상 (WHO(five) well-being index), 업무관련 근골격계질환, 일과 관련된 손상으로 구분되었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 지위의 근로환경과 건강결과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 3. 연구결과

청년 및 고령 근로자는 더 낮은 직업계층을 가졌다. 낮은 사회적 지위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불안정 고용과 육체 노동자 계층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나쁜 건강결과와 모두 연관되어 있었다.

### 4. 결론

육체노동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건강 형평성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자이어야 한다. 그들의 취약성은 인구학적 상태, 직업 지위, 작업환경, 건강결과와 연결되어 중첩되고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 사업장, 근로자 차원의 목표를 실현하는 다차원적 접근으로 개선될 수 있다. 🍵